

10/16/16

설교 제목: 복음을 위해 사도의 권리와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한 바울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고전 9:19-27

- (고전 9:19)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 (고전 9: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절관주** 행 16:3, 행 21:26, 롬 3:19
- (고전 9:21)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절관주** 갈 2:3, 갈 3:2
- (고전 9: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 (고전 9: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절관주** 막 8:35
- (고전 9:24)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 (고전 9: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 (고전 9:26)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 (고전 9: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난 주일 고린도 전서 8 장 우상의 제물에 대해 사도 바울은 지식이 있는 자들은 물론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그들이 주어진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지식이 없는 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그 자유를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9 장에서 자신의 예를 듭니다.

본문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란 인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요즈음 말로 대단한 뒷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왕족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시 경제의 중심지였던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지금의 IVY 리그 대학 중에도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대학교 출신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 사도였습니다.

이런 기득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의 종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전 9:19)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에게는 더 많은 사람을 얻어야 하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자유자였습니다.

진정한 자유자였던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 그는 사도이나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때 반드시 따라오는 한가지 구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을 때 그분을 따라다니며 같이 생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때 따라다니며 같이 생활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를 추종했던 자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문제로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싸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들여다보면 볼 수록 바울이 하는 말이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권위도 없어 보입니다.
인물도 시원찮고 말도 늘변이고.....

또 다른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데 바울은 사례비를 요구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교인들은 바울이 자격이 안되니 그러는 것이라는 등등 별의 별 소설들을 다 써댔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항변을 합니다.

(고전 9:1)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전 9:2)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 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는 사도다. 세상 모두가 나의 사도됨을 부일할지라도 너희들만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충분히 보지 않았느냐? 바로 나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된 너희들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반박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전 9:3)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고전 9:4)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고전 9:5)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고전 9:6)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고전 9:12)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나도 사도이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당당히 사례비를 요구할 수 있다. 베드로 같이 결혼도 하여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다. 이것은 율법에서도 허락된 사도의 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 권리들을 행사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우려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 고백했습니다.

(빌 3: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빌 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와같이 복음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릴 수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한가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자신의 사도됨이었습니다.

그가 사도권에 그토록 집착한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거나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즉 자신이 증거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2. 그는 자유인이었지만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고전 9: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고전 9:21)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고전 9: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유대인들 곧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리고 약한 자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들을 대할 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율법이 있는 자이지만 없는 자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같이 여러 모습이 되어 사람들을 대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에 의해 더 이상 정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할 때는 자신도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으면서 그에게 새삼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행 16:1)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행 16: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행 16: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앎이러라

이유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크리스찬이 되긴 했지만 아직 율법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와 동역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할까 우려해서 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었지만 곧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로, 그리고 곧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율법 없는 자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진정 자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 바울이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산 것은 복음 전파라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첫째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전 9:24)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고전 9: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2년마다 운동 경기가 열렸는데 참가하는 선수들은 약 10개월 전부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와같은 문화에 익숙한 고린도 교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복음 전하는 삶을 육상 경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육상 경기에 참가해서 달린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잘한 사람 한 사람만이 상을 받듯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도 모든 일에 절제된 삶을 산 사람만이 하늘의 상,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합니다.

절제는 승리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김연아 선수 기억하시죠?

정말 위대한 선수였습니다.

선수 시절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환한 미소를 띄고 요정같은 모습으로 빙판을 이리저리 누비며 아름다운 춤을 추는 모습에 세계 모든 사람들은 넋을 놓고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자신들이 요정의 주인공이 된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녀의 실제 삶을 아십니까?

TV에서 김연아 선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화려해 보였던 겉모습 속에 감추어졌던 실제 그녀의 삶은 고된 훈련과 다이어트로 혹독하리만치 절제된 삶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고된 훈련이 이어지고 그 와중에 체중 조절을 하느라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스핀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얼음위에 넘어졌다고 합니다.

발은 징그럽게 모양이 변형되어 있었으며 허리는 아파서 침과 물리 치료를 받고 주사도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등 먹고 싶은 것을 실컷 먹고 잠을 늘어지게 자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유명해져 CF도 많이 찍게 되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코치비 의상비등등 경비로 인해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김연아를 전적으로 따라 다녀야해서 남편을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은 아내없는 그리고 엄마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을 받는 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독한 희생과 자기 절제를 요구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언제 공부하냐’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3 당 4 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험 준비에 3 시간 자고 공부하면 붙고 4 시간 자고 공부하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신과의 싸움 즉 절제가 비단 운동 경기나 공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토록 혹독하리만치 자신을 절제하고 채찍을 가해야 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그리고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 세상에서 얼마나 자신을 절제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전 9: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본문을 우리의 행동에 따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고 잘못 해석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지금 바울은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바울이 두려워 하는 것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상받는 데서 제외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절제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독신의 길을 걸었으며 교회나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천막을 짜 돈을 벌며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 즉 사도로서 교회나 교인으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고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며 살고 있나요?

사도 바울 정도는 못된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하나씩 포기하며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상급을 얻기 위해 절제하며 희생하는 것처럼 하늘의 상급을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시간, 재능, 돈 등등을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쏟아 놓은 상급은 다 썩을지라도 하늘에 쏟아 놓은 상급은 영원히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